

5/27(금) 욥기 20-26장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

㉔-3 소발(두 번째 말, 20장)

소발은 효과적인 상담과 위로의 정반대에 선 사람입니다.

냉담한 말투, 본인 위주의 사고와 자만에 빠져있습니다(20:2-3).

욥의 처지와 심경은 아랑곳없고 노골적인 언어들로 공격합니다(20:4-29).

굳이 욥의 고난을 주도면밀히 복기하여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.

㉔-1 엘리바스(세 번째 말, 22장)

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평소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.

그는 본래부터 욥이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(22:5-11).

죄가 명확하니 회개하라고 결론내립니다(22:21-25).

㉔-2 빌닷(세 번째 말, 25장)

빌닷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.

욥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.

빌닷은 욥의 필요와 요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.

욥은 이들에게 경청, 위로, 공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(26:1-4).

그는 인과응보로 무장한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(21장).

악한 자들의 성공과 번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?

연약한 자를 착취, 유린하고 죽이는 자들은 왜 무사한가?

욥의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.

“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

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(23:10)”

욥에게는 이제 하나님뿐입니다(23:4-7, 10-12).

질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(23:3).

하나님을 어디서,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몰라 안타깝습니다(23:8-9).

욥에게는 갈망과 기대, 두려움과 경외가 교차합니다(23:10-17, 26:5-14).

나는 뜻을 세우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니까?

① 주변의 평가와 공격에 순응하며 자책하고 비관할니까?

② 나를 아시고,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단련 받으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욥기 20-26장